



12 불성과 영혼

'불성(佛性)'이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속성 혹은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씨앗이나 자질로서, 누구나 수행하여 그 바탕을 발굴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빈부귀천이나 지능지수에 관계없이 태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바탕과 기본권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대승열반경에선 '공·연기·중도'로 불성의 정의 설명 힌두교 아트만·영혼과 상이한 개념... 혼동 주의해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경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은 대승불교경전인 <대승열반경>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처음으로 '불신(佛身)은 입멸하지 않는다(佛身不滅=法身常住)'는 설과 함께 '미혹을 포함한 일체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하는 불성사상을 주장했습니다.

(1) 공(空)의 이치가 불성이다(空性佛性說). 일체개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대승열반경, <대정장> 권12, p.523, bl).

(3) 중도의 이치가 불성이다(中道佛性說).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대승열반경, <대정장> 권12, p.523, bl).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아도 성불한 것이 되고, 모든 존재는 상의(相依)관계에 의해서만 생성 소멸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도 성불한 것이 되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도 성불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선에서는 앞의 세 가지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본래정심(本來淸淨心)'이 불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음이 곧 부처다(心是佛, 佛是心)'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心外無佛)' 또는 '마음을 찾으라' 등은 모두 '마음(心)'이 곧 불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경전과 문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성이란 다름 아닌 '각성(覺性)'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속성' '가능성' '자질' 또는 깨달음을 제공하는 '인자(因子)'나 '바탕'입니다. 힌두교의 아트만이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상당한 불교인들이 불성을 아트만(영혼)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오류는 아마 불성에 대하여 설명할 적에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인자(因子)' 또는 '바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는다' '무엇이 보고 듣고 하는 지 그 놈을 찾으라' 또는

'불성은 모양도 색깔도 없으며,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트만과 불성을 혼동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열반경>엔 그 어디에도 불성을 영혼과 동일시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만일 불성이 곧 아트만(영혼)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외제대는 깨달음이란 결론적으로 영혼을 깨닫는 것인데, 영혼의 어떤 점을 깨닫는 것입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영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하루 10여 시간 이상씩 잠들어야 그런 것을 깨닫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면 마음이 평안한 열반의 경지를 얻는다는 것입니까? '영생불사(永生不死)'하거나 산 채로 하늘로 올라간다고(개우계)? 신룡을 같은 것을 얻어 미래사가 훨씬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불교의 깨달음과 영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성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비롯한 달마·혜능·원효 등 역사상 위대한 고승들은 모두 다 영혼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수행했고, 영혼의 세계를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 불성이 바로 영혼이라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무속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굳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필요 없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묻는 것이 깨달음의 절경이 될 것입니다.

불성과 영혼을 동일시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교리·사상·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희 민족사 대표

신행게시판

● 호암사 불교교양강좌 개강-서울 호암사(주) 지 지장가 4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15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하는 이번 교양강좌는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 강의와 더불어 불교문화·음악에 대한 특강도 함께 실시된다.

● 법왕정사 삼천배 철야정진-서울 법왕정사(주) 분당하남마을에서 제100회 삼천배 철야정진을 한다. 3월 29일 저녁 9시부터 30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되는 삼천배 철야정진에 동참하려면 수련복, 발로해, 큰 목욕수건, 작은 수건, 면장갑, 방수포, 텐트, 환청갑,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준비해야 한다.

● 호두마을 우뻘사나 명상센터 4월 수행-천안 호두마을 우뻘사나 명상센터가 4월 수행 일정을 발표했다. 4월은 주말마다 초보자 주말수행을 마련한다.

● 금강선원 참선마을 내나무심기 템플스테이-함양 금강선원 참선마을에서는 내 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내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 보리수선원 한 달 집중수행-서울 보리수선원(주) 매일 4월 1~30일 11차 한 달 집중수행을 한다. 오후 4시 30분 시작해 오전 10시에 끝난다.

● 전학문의 상담 환영-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생명에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유기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역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죽염 230g 50,000원

개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두 지아비의 '극락왕생' 이끌어
광덕의 아내
통일신라 문무왕(661~681) 때,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란 숨어 사는 두 사문(沙門)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본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